호남 주도 정권교체 이끌 '잠룡' 부상

국민의당 광주 서구 을 **천정배**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물인 양향자 후보를 물리치고 광주 서구을에서 6선 고지에 올랐다.

국민의당 공동대표이자 지역 최다선인 5선 의원이 수성에 나선 가운데 더민주에서는 '고졸신화'의 삼성전자 상무 출신 양 후보를 대항마로 내세워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 관심이 쏠렸다.

천 대표는 광주·전남 최다선으로 지역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됐으나 선거 중 내상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뉴DJ 발굴' 실패, 야권연대를 둘러싼 지도부 간 갈등 등으로 리더십이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믿었던 측근들이 등을 돌리는가 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지역구 시·구의원들의 '퇴출' 단식 등 반발에 부닥치기도 했다. 하지만, 천 대표가 6선 고지에 오르면서 선거 내내 기치로 내세웠던 호남 주도 정권교체를 이끌 기반을 다지게 됐다는 평가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정계개편 흐름에서도 역할이 주목된다. 국민의당 안팎에서는 '잠룡'으로도 거론된다.

특히 참여정부와의 인연, 지난해 보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 후 무소속 당선, 이번 총선에서 광주 등 호남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압승을 이끈 정치이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관심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초반 열세 딛고 광주 첫 여성 재선 성공

국민의당 광주 광산 을 **권은희**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역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가 지역 첫 여성 재선의원에 당선됐다.

권 의원은 이번 당선으로 정부에 맞서는 야당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됐다. 18대 대선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정부 심판' 상징성을 바탕으로 2014년 7·30 재보궐선거 광산을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당시 광산을 지역구를 물려준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맞대결을 벌인 이용섭 후보다. 이 후보는 당시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권 의원은 이 후보의 탄탄한 조직에 밀려 선거 초반 열세를 보였지만, 꾸준하게 지역을 돌며 표심을 다져온데다 '녹색 돌풍'에 힘입어 이 후보를 따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권 의원은 국회에 입성해 임기는 2년 남짓했지만,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며 광주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 군부대 이전 추진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구인 하남산단 혁신산단 지정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의 발판을 마련했고, 최근에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베트남 이전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더민주 '거물' 우윤근 의원 4선 저지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국민의당 정인화 후보는 13일 광양·곡성·구례에서 거물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4선 도전을 저지,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이번 총선은 그동안 정치혐오, 지역발전 미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바꿔야 한다는 지역민의 염원이 표로 이어진 결과라고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도청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 국장과 본부장 등을 역임한 정통 행정관료 출신인 정 당선인은 "당장 국회에 진출하면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로 들어가 획기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찾아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시·군민의 대변자로서 갈라진 민심을 추스르고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시민 중심의 선거를 선언하고, 슬로건 공모부터 '깨끗한 선거를 위한 바꾸자 펀드'를 출시했다. 또 입법부에 진출하려는 후보로서 불합리한 법으로 인한 피해 제보를 받고 시민이 만든 공약을 가다듬는 등 선거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광양항 투포트 정책 재실행 추진 ▲섬진강환경유역청 유치 ▲섬진강연어 브랜드화 ▲행정구역 내 고속도로 무료 이용 등 공약을 내걸고 3선 피로감과 10여년 지역경제 침체 책임론에 시달리던 우 의원을 큰 격차로 꺾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판사 출신…입문 3개월만에 여의도 입성

국민의당 광주 서구 갑 **송기석**

국민의당 호남 인재영입 1호 송기석(52) 후보가 '녹색 태풍'을 타고 지역 터줏대감들을 줄줄이 물리치며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광주지역 당선인 8명 중 사실상 '초짜 정치 신인'인 송 당선인은 종친 간 대결로 이목을 끌어온 20대 총선에서 종친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송 당선인은 지난 1월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퇴임한 뒤 정치에 입문, 3개월 여만에 국회의원 뱃지를 달게 됐다. 그는 양동과 농성동 등을 기반으로 옛 도심에서 바닥표를 쓸어담았으며, 여기에 국민의당 녹색바람까지 더해지면서 거침없이 당선 가도를 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송 당선인은 경선에서 지옥과 천당을 오가기도 했다. 신인 가점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일면서 공천자가 교체되면서 국회의원 당선의 꿈을 이뤘다.

광주지법 판사 시절에는 '광주 횃불회' 재심 사건을 맡아 독재 정권의 용공조작으로 33년 간 억울한 누명을 써온 피해자 4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여수 원유 유출 사고를 일으킨 우이산호 관련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송 당선인은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국민의당 중심의 야권 재편에 노력하고 수권능력을 키우는데 힘쓰겠다"면서 "정치신인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보수 철옹성' 대구, 31년만에 야당 깃발

더민주 대구 수성구 갑 **김부겸**

김부겸(59)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구에 푸른색 깃발을 꽂았다. 실질적인 야당 후보가 대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은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1985년 제12대 총선이었다. 31년만에 야당 의원이 대구에 등장한 것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 김 후보는 강력한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구 출신인 그는 1991년 제정구, 이부영 등과 함께 '꼬마 민주당'에 입당한 후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합류했다. 제13·15대 총선에 야당으로 나와 낙선한 뒤 제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명패를 달고 경기 군포을에서 처음 별을 달았다. 열린우리당 창당멤버로 제17·18대 총선에서 무난히 1위를 지켰으나, '큰 뜻'을 품고 19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으로 옮겨 출마했다. 2위 (40.42%)로 낙선한 뒤 다시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시장에 출마, 또다시 2위 (40.3%)로 떨어졌다. 이후 대구에 상주하면서 밑바닥을 훑어 각종 여론조사,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다.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김문수 후보를 큰 표 차로 꺾으면서 대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각인될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호남 대선주자, 고향서 화려한 부활

국민의당 전주시 병 **정동영**

정동영(62) 국민의당 후보가 고향에서 또다시 정치적 복권에 성공했다. 한 때 정치적 동지이자 대학 후배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와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치기는 했지만 방송 3사 출구조사부터 근소한 차이로 앞서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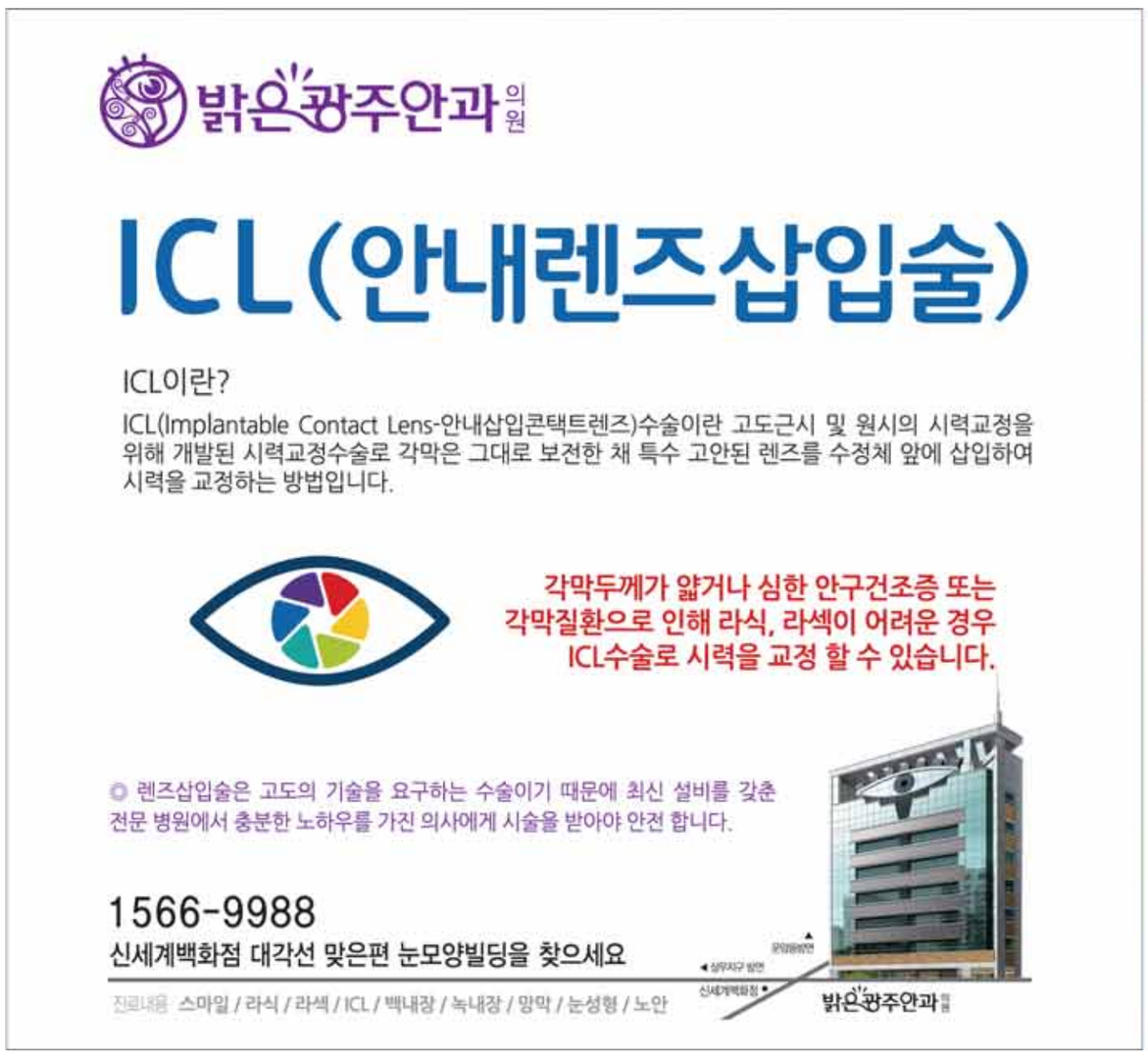
정 후보는 방송국 기자, 앵커로 유명세를 얻은 뒤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전주시 덕진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국회에 입성했다. 대변인·총재 특보·청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16대 총선에서도 88.2%의 압도적인 지지로 2선에 성공했다.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22번으로 출마했다가 '노인 폄하 발언' 논란으로 비례대표를 반납하는 등 정치적 위기도 겪었다. 이후 통일부장관, 열린우리당 당 의장 등을 역임한 뒤 제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패했다. 제18대 총선에서 당의 요청으로 서울 동작구에 출마했다가 낙선, 2009년 재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전주 덕진에서 당선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초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뒤 칩거했다. 국민의당 합류를 결정한 뒤 열세였던 전북을 이끌면서 압승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당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전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강현옥 이어 20년만의 전북 여당의원

새누리당 전주시 을 **정운천**

새누리당 정운천(62) 후보가 3번의 도전만에 고향에서 빨간 점퍼를 입고 국회 진입에 성공했다. 1996년 강현옥 의원 이후 20년만이다. 순천 이정현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내 호남을 대표하는 인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

고창이 고향인 그는 고려대 농경제학을 전공한 후 해남에 내려와 약 30년을 전업 농부로 살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농법 도입에 열의를 보였다. 특히 국산 재래종 다래를 외국의 키위에 맞설 수 있는 고소득 작물로 키웠다. 1991년 뉴질랜드산 키위를 참다래라고 명명하고, '참다래유통사업단'을 만들어 호평을 받았다. 신지식 농업인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내던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문제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10년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나라당 소속으로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2위(18.20%)로 낙선했으며, 2010년 한나라당의 지명직 최고의원을 지냈다. 19대 총선에서 전주 완산구을에 나와 2위(35.79%)로 다시 고배를 마셨다. 30% 정도의 기본적인 지지에 김무성 대표 등 여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